

“당당히 승리해 진안 도약 이끌 것”

민주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공천장 수여 받으며 본선 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 후보는 12일 오후 전남 강진 제2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전북 공천자 대회'에 참석해 공천장을 수여 받고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도지사 후보 등 당 지도부와 호남 지역 주요 후보자들이 대거 집결해 지방선거 입성을 위한 결속력을 다졌다.

전춘성 후보는 공천장을 수여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후보로서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전 후보는 출마 당시부터 구상해 온 민선 9기 진안 발전을 위한 3대 핵심 가치인 △진안형 기본사회를 위한 군민기본권 보장, △부자농촌 만들기를 통한 농촌경제 도약, △치유특화 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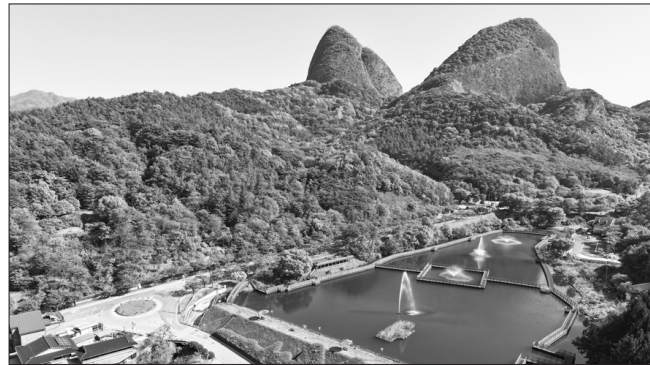
특히 전 후보는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금품 관련 비방과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필승의 의지를 보였다.

전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방은 진안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구태 정치”라고 일축하며, “이번

공천장 수여를 통해 담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오직 진안의 미래와 군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본선 승리를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후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이번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진안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회는 국민의례, 지도부 인사말, 공천장 수여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후보는 호남권 공천자들과 함께 필승 구호를 제창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고원의 대표 명산을 중심으로 한 힐링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마이산 전경.

‘진안고원 명산 로드’ 주목

마이산·운장산·구봉산·천반산 등 힐링 산행 관광지 각광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고원의 대표 명산을 중심으로 한 힐링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해발 35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자리한 진안은 맑은 공기와 수려한 산세를 갖춘 대표 산악 관광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명산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은 말의 귀를 닮은 독특한 산세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손꼽힌다. 산림청과 블랙야크 선정 100대 명산을 비롯해 한국관광 100선, 일본여행업협회(JATA) 선정 한국 절경 30선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가지질명소로 지정된 타포니 지형과 탐사의 돌담군은 마이산만의 상징적인 풍경으로 평가받는다.

진안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운장산(1,126m)은 깊은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명품 산행지다. 산림청 및 블랙야크 선정 100대 명산으로 꼽히며, 갈거계곡과 운장산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사계절 산림휴양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구봉산은 아홉 개의 봉우리가 이어지는 독특한 산세와 구름다리로 유명하다. 국가지질명소이자 블랙야크 100대 명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최근에는 은하수 촬영 명소로 알려지면서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반산은 깎아지른 병풍바위와 맑은 강물이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하는 국가지질명소다. 조선 중기 사승가 정여립의 활동 무대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와 자연경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산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진안군은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혜택도 운영 중이다.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여행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스마트관광 가맹점 이용 후 SNS 인증을 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1박2만 행복속박'을 통해 숙박비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스코트 '빠랑이'를 활용한 스탬프투어와 관광지 스냅촬영 지원사업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도 함께 운영하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중화장실 합동점검 실시

전통시장·관광지 등 20여 곳 대상 시설·위생·불법촬영 집중 점검

무주군이 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며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공중화장실 2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2일 실시된 현장 점검에는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읍·면 전통시장과 구천동관광특구 다목적광장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 화장실이다.

점검단은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와 장애인 화장실 시설물 상태를 비롯해 비상벨과 환풍기 작동 여부, 화장실 청결 상태, 개수대와 변기 고장 유무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의심 물체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 천장과 벽체, 분고리, 화장지 깔이 등 취약 지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 결과 공공시설 및 주요 관광지 화장실에서는 불법 촬영기와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주군은 향후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 보존 후 즉시 무주경찰서에 신고하고, 의심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에게 신속한 보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 내·외부 안내판 위치와 표시 적절성 여부도 함께 점검해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무주군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장수군은 12일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행동절차와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2026년 5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복합·다양화되는 안보환경과 재난 양상에 맞춰 비상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공직자들의 초동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오는 8월 예정된 전 국민 참여 훈련에 앞서 행정 대비 태세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분청과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해 대피로 점검과 대피 장소별 입부 숙달을 집중점검 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필수 업무 부서는 정상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대피장소 집결 이후에는 심폐소생술(CPR)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을 병행 실시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군은 앞으로도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편 군은 연간 민방위훈련 계획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연 4회(3·5·8·11월) 정례 운영하고 있다. 8월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대규모 주민 대피 훈련을, 11월에는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구천동 특구 소상공인 서비스 교육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구천동 특구 소상공인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천동 관광특구 내 상가와 사업체 종사자들의 방문객 응대 역량을 높이고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덕유지구 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전향 한국CSM인재개발원장이 맡아 사례 중심의 강의와 참여형 실습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서는 불만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에 대한

맞춤형 응대 방법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친절 서비스 기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업소별 특성에 맞는 접객 태도와 현장 실무 중심의 서비스 노하우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덕유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배방지구와 삼거리지구 등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서비스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1대1 현장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노승무)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며 군민 정신건강 돌보기에 나섰다.

센터는 장계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계남면, 계북면, 번안면 일원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

주요 운영 내용은 △스트레스 측정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 △자살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마음안심버스 내부에는 정신건강 검진 장비가 탑재돼 장소 제약 없이 체계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1대 1 맞춤형 상담도 즉석에서 진행되고 상담에서는 주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요 농업시설 현장점검 나서

진안군은 지난 12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영농 지원에 집중을 위해 주요 농업시설을 방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나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술 지원과 생산·가공·유통 기반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존 하우스 활용 촉매 고설 수경재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촉매 재배단지를 찾아 작황과 재배 현황을 살피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군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농약 분석 관련 시설과 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해 과학영농 지원체제와 친환경 농업 기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농산물중합기공센터를 찾아 영농 편의 지원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운영 현황을 살폈으며,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과 양묘장에서는 미래농업 대응 기반과 안정적인 영농 지원 체계를 확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